



### KIA 日 전훈 캠프를 가다

미야자키=박진표 기자



## “개막전 선발은 진우다”

#### 서감독 “컨디션 최상...15승 가능”

#### 에서튼·전병두·이상화 등 선발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첫 출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다.

KIA타이거즈가 올 시즌 첫 단추로 ‘특급 선발’ 김진우(24)를 낙점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스프링 캠프를 지휘하고 있는 서정환 KIA 감독은 8일 “오는 4월 6일 잠실(오후 6시)에서 열릴 LG와의 시즌 개막전에 김진우를 선발로 내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감독은 또 “선발진은 5선발을 기준으로 김진우-에서튼-전병두-이상화(박정태)-이동현 등을 염두에 두고 선발 수업을 시키고 있다”면서 “장문석은 아직 제 페이스를 찾지 못해 좀 더 지켜봐야겠고,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기량이 늘어가는 진민호가 잠재적인 선발 대상자”라고 덧붙였다.

물론 마무리는 ‘피터팬’ 한기주(20)가 맡는다. 다재다능한 윤석민(21)은 셋업맨이 유력하지만, 마운드의 여건에 따라 선발진으로 가담할 수도 있다.

치밀한 작전 야구를 구사하는 서 감독이 김진우를 개막전 선발투수로 낙점한 것은 그만큼 그의 기량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12일 미국 팔머에서 시작된 1차 전지훈련부터 참가하고 있는 김진우는 곧바로 실전에 투입돼도 무리가 없을 만큼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김봉근 투수 코치는 “(김)진우의 눈빛부터가 다르다. 자발적으로 모든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면서 “현 페이스를 유지만 한다면 김진우에게 특별한 한해가 될 듯 하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김진우가 개막전 선발로 낙점된 데에는 최근 2년간 야간경기에서 유독 잘 던졌다는 점도 작용했다.

빠른 직구와 낙차 큰 슬라이더가 장점인 김진우의 볼은 야간경기 때 더욱 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시즌 성적에서도 김진우는 지난 시즌 10승(4패) 가운데 9승(3패)을 야간경기에서 올렸다.

다소 부진했던 지난 2005 시즌에도 8승(10패) 가운데 6승(8패)을 밤 경기에서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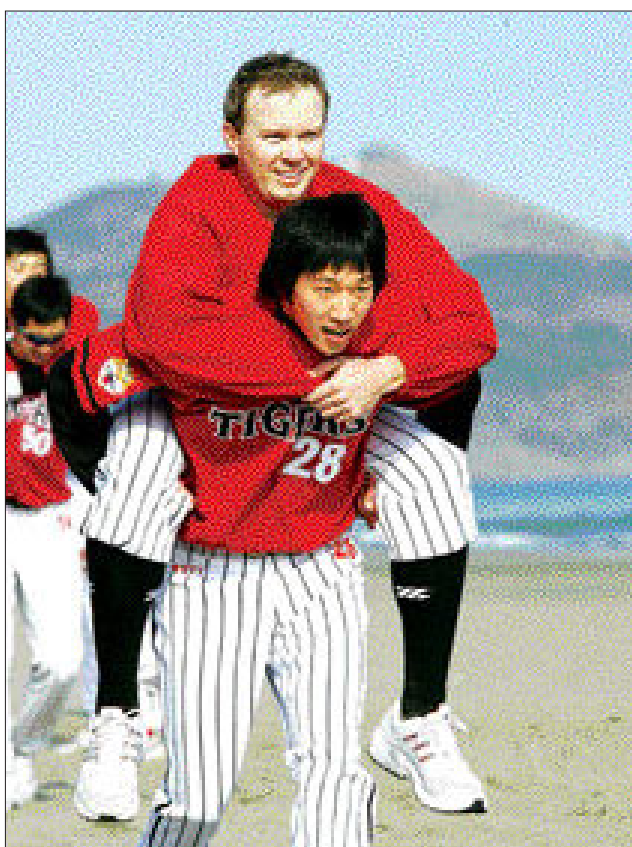
서 감독은 “(김)진우의 컨디션은 그 어느때 보다도 최상이다. 본인도 하려는 의욕이 강하다”면서 “부상만 없다면 올 시즌 15승 이상은 무난히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현재 김진우는 이틀에 한번씩 이치 사이드(70~80%의 힘으로 던지는 피칭) 65개 안팎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다소 약했던 몸쪽 제구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투구의 질반은 몸쪽에 던지는 등 약점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김진우는 “시즌 개막전 선발로 나서는 것은 큰 영광이다. 팀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보탬이 되는 투수가 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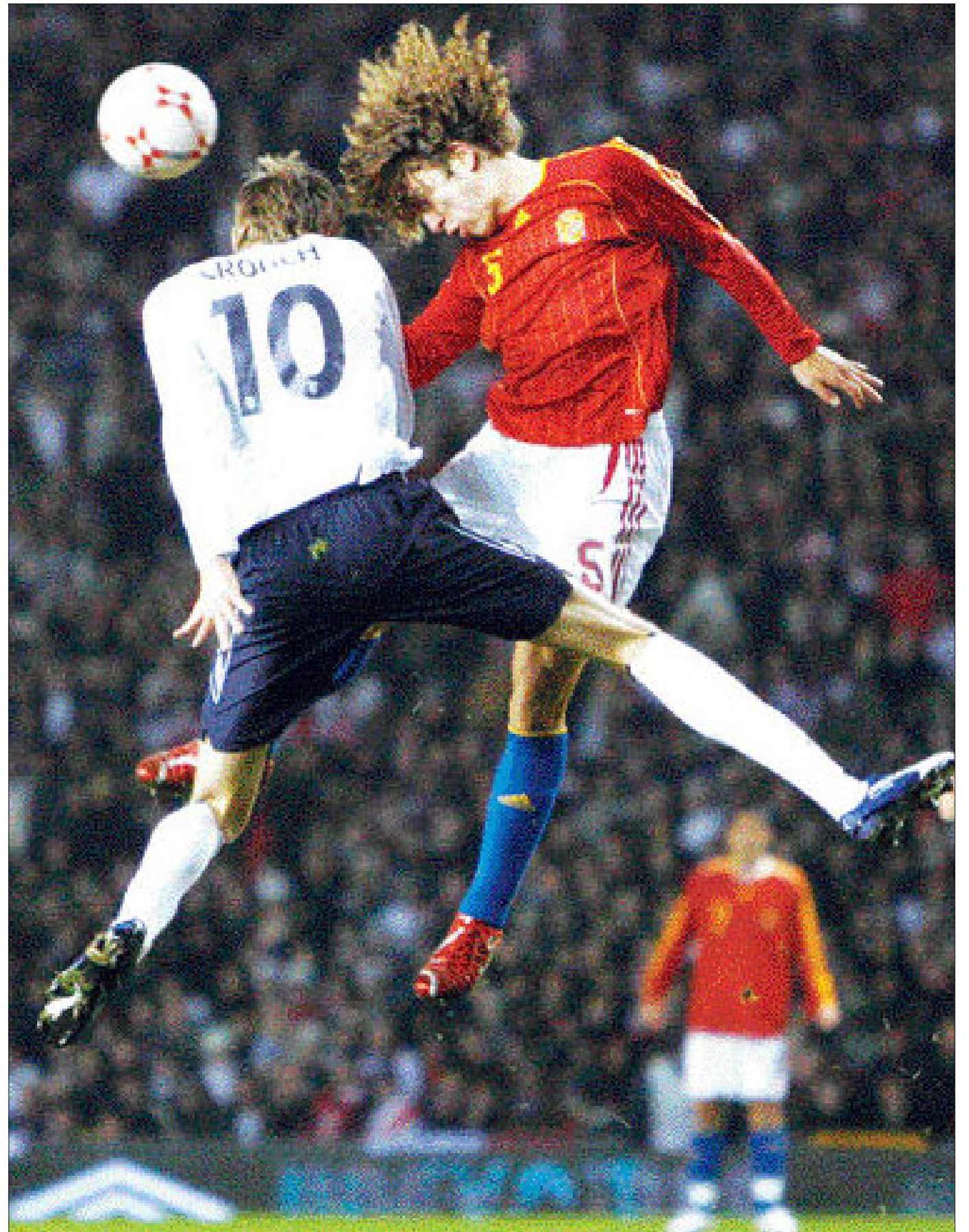


서정환 KIA감독이 특타훈련을 지시하고 있다.



호랑이 ‘업고 달리기’ 훈련

KIA 투수 전병두가 8일 일본 미야자키 스프링 캠프 훈련장 인근 해변에서 ‘용병투수’ 에서튼을 등에 태운 채 말타기 놀이를 하고 있다.



스페인-잉글랜드 ‘공중전’

스페인의 카를로스 푸울(오른쪽)이 7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축구 친선경기에서 잉글랜드의 피터 크라우치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스페인이 1-0으로 승리. /로이터=연합뉴스

## 프리미어리그 4인방 내일 뜬다

### 박지성·이영표·설기현·이동국 동시 출격

새해 첫 축구대표팀 A매치에서 기분좋은 승리를 함축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삼총사와 데뷔전을 앞둔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이번 주말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에서 대표팀 평가전을 치른 덕에 ‘20시간 왕복 비행’의 피곤함을 털어낸 설기현(28·레딩)과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이영표(30·토트넘)는 10일 밤(이하 한국시간) 나란히 2006~2007 프리미어리그 정규시즌 26~27라운드 경기에 출격한다.

리그 6위까지 올라온 레딩은 10일 밤 9시 45분 런던 근교 마데스키 스타디움에서 13위 에스턴 빌라와 맞붙는다.

정장 정복이 가시권에 들어온 맨유는 10일 자정 19위 찰턴 애슬레틱을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이고, 갈 길 바쁜 토트넘(11위)은 같은 시간 셰필드 유나이티드(16위)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주말 데뷔전을 갖지 못해 바짝 몸이 달아오른 이동국의 소속팀 미들즈브러(12위)도 같은 시간 런던 스토퍼드 브리지에서 리그 2위 첼시와 원정 경기를 갖는다.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는 스포츠 전문채널 MBC ESPN은 박지성, 이동국의 경기가 같은 시간에 겹치는 바람에 어느 경기를 ‘라이브’로 내보내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다. 이날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8경기 가운데

최대 네 경기에서 코리안 프리미어리그의 활약상을 볼 수도 있다. 축구 팬들에게는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할 주말 밤이 기다리고 있다.

이영표는 11경기 연속 정규리그 폴타임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이동국의 데뷔전이다.

지난 주말 아스널전에 아예그베니 야쿠부 와 마크 비투카를 내보낸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두 번째 대박 매치’인 첼시전에 이동국 투입을 조심스럽게 저울질하고 있다.

이동국의 주전 경쟁자인 호주 국가대표 비투카는 지난 7일 덴마크와 A매치에 뛰지 않았다.

아예 엔트리에도 들지 않아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인지, 부상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장미란 몸값 8억 ‘번쩍’

### 고양시청 입단 3년 계약

### 역도 사상 첫 역대 연봉

소속 팀을 찾지 못해 잠시 무적선수가 됐던 한국 여자역도의 간판 장미란(24·사진)이 계약기간 3년에 8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양시청에 입단할 것으로 보인다.

장미란의 아버지 장호철씨는 8일 “고양시청과 정식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3년간 계약금 5억 원에 연봉 1억 원을 받고 입단하기로 일단 합의를 봤다”면서 “포상금 제도까지 포함하면 최소 8억 원 이상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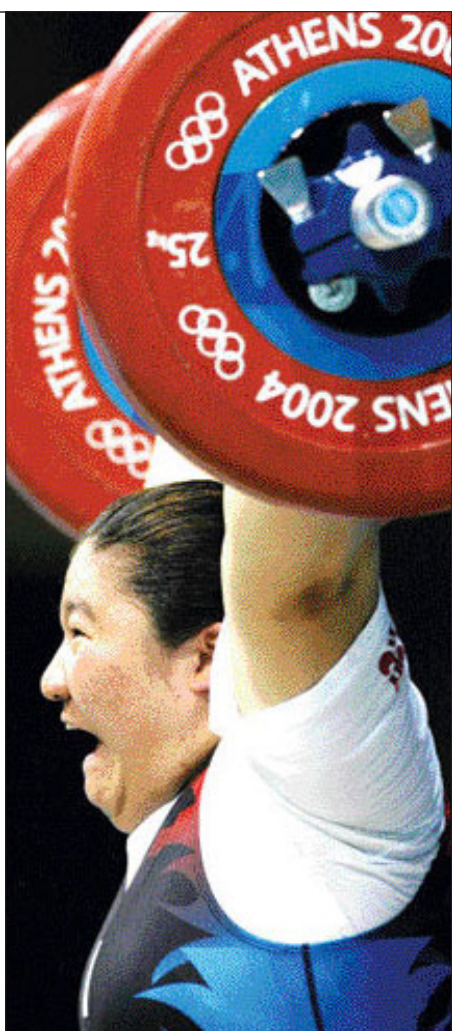
장미란이 이러한 계약 조건으로 고양시청에 입단할 경우 한국 역도 사상 남녀 선수 통틀어 최초 역대 연봉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또 장미란과 함께 전 소속팀인 원주시청을 떠난 동생 장미령(22)도 3년 동안 연봉 3천600만 원을 받고 고양시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호철씨는 “들의 계약이 80~90% 성사 단계에 있다”면서 “빠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입단식을 갖고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란이와 미령이의 이적은 연봉이나 계약금 때문만 아니다”라면서 “체육관이나 숙소시설이 전보다 좋아 둘다 고양시청 입단을 앞두고 만족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5일 “더 나은 여건에서 훈련을 하고 싶다”면서 원주시청에 사표를 제출한 장미란은 이후 4~5개 지자체 등과 협의를 했지만 팀이 확정되지 않아 한동안 무적 선수로 지내왔다.



## 베에벡 감독 ‘진로’ 변경

### K리그 전후진 터키행 취소 올림픽 2차 예선 대비기로

킵 베에벡(51) 축구대표팀 감독이 갑자기 ‘진로’를 바꿨다.

7일(이하 한국시간) ‘축구중가의 심장’ 영국 런던에서 유럽축구 챔피언 그리스를 사냥한 베에벡은 당초 터키 안탈리아로 향할 예정이었다.

안탈리아에는 FC서울, 울산, 전북, 대구 FC, 포항 등 K-리그 다섯 팀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베에벡은 차츰 갈등으로 소원해진 K-리그 감독들과 핵심타회한 대화도 나누고 승

은 진주 찾기도 해볼 겸 터키로 갈 생각이었는데 느닷없이 행선지를 바꿨다는 게 대한 축구협회의 설명이다.

눈앞에 놓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때문이다.

베에벡은 일단 독일 뒤셀도르프로 날아간 뒤 13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향할 계획이다. 독일에선 최근 엔트리에 들기 시작한 차두리(27·FSV마인츠05)를 체크할 지도 모른다.

베에벡은 UAE행의 목적은 상대 전력 분석이다.

UAE 아부다비에서는 14일 팔레스타인과 예멘의 올림픽대표팀 경기가 잡혀있다. 팔레스타인의 홈 경기이지만 국제경기를 치를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팔레스타인은 중동 인근 중동 국가에서 안방 매치를 한다.

한국 올림픽축구대표팀은 28일 저녁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이 경기의 승자와 올림픽 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베에벡은 K-리그 팀들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의 적’을 분석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